

高等學生의 藥物 濫用 實態

趙 連 淑 *

The actual conditions on drug ab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city

Yeon--Sook ,Cho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relating to a variety of substance which have been used by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subject of 2411 students in an academic boys' high school, academic girls' high school, technical boys' high school and technical girls' high school in Pusan, from the 15th day to 29th day of March, 1989. The summarized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not a remarkable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these subjects in boys' & girls' high school. The common and good health condition of subjects accounted for 90 percent or higher. 24.4 percent of them also had smoking experience, 11.6 percent of which continues to smoking.

The understanding rate of these substances name other than sedative, psychostimulants and antihypnotic accounted for 90 percent or higher. The experience rate taking these substances for one year showed that anodyne, digestive and nutritive tonic accounted for 70 percent, antihypnotic for 15.6 percent, sedative for 1.4 percent, respectively, and psychostimulants for 0.5 percent. Moreover, it was shown that drugs accounted for 1.5 percent, bond for 1.4 percent, and thinner for 0.5 percent.

The rate of the daily experiencers who took anodyne, digestive, nutritive tonic, sedatives, and psychostimulants and so on was 7.7 percent, 6.2 percent, 5.2 percent, 5.9 percent, and 5.0 percent respectively. This fact implied that there was a serious problem in high school students' non-narcotic abuse.

The usage rate of these substances for treatment purpose showed that anodyme accounted for 90 percent or higher, and digestive for 70-80 percent, respectively, where girl students showed higher rate than one of boy students.

Additionally, there was higher the usage rate for other purposes. The usage rate of drugs was highest when these students felt melancholy and curiosity.

Their obtaining place appeared that these students mainly obtained these drugs, bonds and thinners from a

* 慶北大學校 保健大學院

small shop or peddler and their friend while they usually obtained other substance from the pharmacy and medical institute.

The first usage time of these substances appeared during the middle school (the age of 14-15) which was the highest rate.

The smoker of all subjects used remarkably large substances as compared with one of no-smoker. Particularly, it appeared that the usage of drugs was very closely related to smoking.

The large number of students did not use these substances for desirable purposes even though they understood the name of these substances.

For this reason, from primary schools it is required to teach the students dependence and harmful effects caused by these substances abuse. Moreover, it was shown that these students firstly used these substances during the middle school (the age of 14-15) due to curiosity. As a result, it is very urgent to give the students health education suitable for prevention of these substance abuse, when considering harmful effects of these substances. And so health education for no-smoking.

Finally, considering that it is very easy to obtain these substances from a small shop and pharmacy, the regulation of these substances control should be considered and completed in the future.

I. 서 론

약물은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은 인류의 평균수명을 연장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의약품은 적정량 이상으로 과량 투여하거나 잘못 복용할 경우에는 독물로 작용하여 약해를 일으키게 되어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¹⁻³⁾ 의약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데 불가결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이익을 남기는 상품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과다경쟁과 대중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로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하였으며, 의료가 곧 약이라는 약 선호사상이 만연하게 되어 의약품의 남용 및 오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⁴⁾ 즉,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소비액은 1961~1985년간 1980년 불변가격으로 13.9배(년평균 11.6%)가 증가되었고, 의약품 생산품목 수도 8.3배(년평균 9.2%)나 증가되어 의약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⁵⁾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과대광고, 의약분업의 미 실시 등이 의약품 남·오용의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갈등과 고통의 도피수단으로 의약품 및 약물 남용이 증가되고, 윤리·도덕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결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약물 남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 청소년의 성 문제가 약물남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⁶⁻⁸⁾

Black⁹⁾ 등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24%가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미국 대학생들의 17%가 상습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류는 물론 마리화나, L.S.D. 같은 환각제 및 그외의 비마약성 약물남용은 더욱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도 약물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호기심 때문에 구하기 쉬운 접착제나 분도, 신나,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여 자제력을 잃고 폭행이나 자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줄이려고 상습적으로

각성제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⁶⁾

약물남용은 60년대에는 아편,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로 남용되다가 80년대에는 “백색의 악마”라 불리는 히로뽕이 남용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연령이나 계층을 떠나 다양하게 퍼지고 있어 보통 시립들도 마약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히로뽕 중독자의 60~70%가 주위의 권유로 히로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¹⁰⁾ 하므로 마약에 대한 홍보 및 예방의학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늘어가고 있는 비마약성 약물남용을 포함한 이들 약물남용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의 기풍과 질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사용 동기 등을 파악하여 이의 근절을 위한 기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 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약물사용에 대한 실태와 복용동기, 복용빈도 등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약물 남·오용에 의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등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부산시내에 위치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4개교의 학생중 각 학교의 각 학년별 4개반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학교에 620 매씩 총 2,480매의 설문지 배부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설문지를 1989년 3월 15일 부터 3월 29일 사이에 4개교의 양호담당 교사가 직접 교련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들어가서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토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431매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지 20매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

제 자료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모두 2,411명 (97.2%) 이었다.

설문지에서 의약품 구분은 세계정신 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분석기준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침⁶⁾의 기준을 참고로 하였고, 이를 근거로 만든 자료를 고등학생 6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의약품을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안정제, 각성제, 최면제, 마약류, 본드, 신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약명 파악 정도, 지난 1년간의 약물 복용정도, 복용이유, 구입장소, 구입지, 복용횟수, 부작용정도 등을 기입토록 하였는데. 설문지에 제시된 약품명은 다음과 같다.

진통제 : 아스피린, 게보린, 아셀아미노펜, 사리돈, 펜잘, 다가, 폰탈 등 7가지

소화제 : 웨스탈, 비오티스, 가스활명수, 정로환, 베스타제 등 5가지

자양강장제 : 박카스, 원비디, 삼정톤, 구론산 진하이 등 5가지

안정제 : 다아제팜, 아티반, 옥시돌, 코데인, 프링가, 엑티바, 옴타리돈, 아빌, 레미라 등 9가지

최면제 : 놀다미드정, 비리움정, 달미돔캡셀, 파세돈 등 4가지

각성제 : 타이밍, 카이트스루에이팅, 레크린, 에스나민, 하트마임 등 5가지

마약류 : 마리화나, 대마초, 몰핀, 아편, 데메롤, 히로뽕 등 6가지

III. 성 적

대상학생 총 2,411명 중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0.0%였고, 실업계가 49.3%, 인문계가 50.7%였으며,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90%이상이었으며, 대상학생의 24.4%가 흡연경험이 있었는데 남자(44.1%)가 여자(4.7%)보다, 실업계(27.3%)가 인문계(2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P > 0.01$). 이들 중 현재 흡연자는 11.6%였으며, 매일 피운다는 비율도 6.3%로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

< 표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¹⁾

(단위 : %)

학	년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1	33.5	34.1	33.8	34.5	34.5	34.5	34.0	34.3	34.1			
	2	33.0	33.6	33.3	33.6	32.7	33.2	33.3	33.1	33.2			
	3	33.5	32.4	32.9	31.9	32.7	32.3	32.7	32.6	32.6			
건강상태	아 주 건 강	11.9	9.7	10.8	7.9	8.6	8.3	9.9	9.2	9.5			
	건 강	45.2	40.1	42.7	43.6	40.4	42.0	44.4	40.2	42.3			
	보 통	34.5	38.8	36.7	42.9	40.8	41.8	38.7	39.7	39.3			
	약 한 편	7.0	10.0	8.5	5.4	9.1	7.3	6.2	9.6	7.9			
	아 주 허 약	1.2	1.0	1.1	0.1	1.1	0.6	0.7	1.1	0.9			
	머 상	0.2	0.3	0.2	-	-	-	0.1	0.2	0.1			
흡연경험	있	다	50.2	38.2	44.1**	4.2	5.2	4.7	27.3	21.6	24.4**		
빛	빈	도	매	일	(15.2)	(9.4)	(12.3)	(0.2)	(0.3)	(0.2)	(7.7)	(4.8)	(6.3)
	1주에	1~2회	(5.9)	(6.4)	(6.1)	(-)	(0.2)	(0.1)	(2.9)	(3.3)	(3.1)		
	1달에	1~2회	(5.0)	(3.4)	(4.2)	(-)	(0.3)	(0.2)	(2.5)	(1.9)	(2.2)		
	현재비흡연		(24.1)	(18.9)	(21.5)	(4.0)	(4.3)	(4.2)	(14.1)	(11.6)	(12.8)		
	없	다	49.8	61.8	55.9	95.8	(94.8)	(95.3)	(72.7)	(78.4)	(7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97)	(608)	(1,205)	(592)	(614)	(1,206)	(1,189)	(1,222)	(2,411)		

** P < 0.01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의 경우 98.3% 이상의 학생이 제시한 약품명을 한가지 이상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했고 남·여별, 실업계, 인문계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진통제는 7가지 중 평균 4.7가지, 소화제는 5가지 중 3.5가지, 자양강제는 5가지 중 3.7가지를 평균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1년간 한가지 이상 약물

복용 경험자는 진통제가 대상자의 78.1%, 소화제 79.1%, 자양강장제가 76.6%였으며 약물의 평균 복용 종류는 각각 2.4가지 1.6가지, 1.8가지로서 제시한 약품수의 34.3% 32.0%, 36.0%에 해당된다. 이들 약품의 복

용경험률은 자양강장제를 제외하고 실업계와 인문계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진통제·소화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P < 0.01$) (표 2).

〈표 2〉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의 약명 파악정도 및 복용여부별 분포

(단위: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진 통 제 (7) ¹⁾	약명 파악률 ²⁾	98.8	99.8	99.3	99.8	99.5	99.7	99.3	99.7	99.5
	평균약명파악수	4.7	4.8	4.7	4.7	4.7	4.7	4.7	4.8	4.7
	복용 경험률 ³⁾	71.9	72.2	72.0	86.0	82.3	84.1	78.9	77.3	78.1
	평균복용수	2.2	2.1	2.2	2.6	2.5	2.5	2.4	2.3	2.4
소 화 제 (5)	약명 파악률 ²⁾	98.7	99.8	99.2	99.6	99.4	99.5	99.2	99.6	99.4
	평균약명파악수	3.5	3.5	3.5	3.5	3.6	3.5	3.5	3.5	3.5
	복용 경험률 ³⁾	76.1	77.6	76.9	80.6	81.9	81.3	78.3	79.8	79.1
	평균복용수	1.5	1.7	1.6	1.4	1.8	1.7	1.5	1.8	1.6
자양강장제 (5)	약명 파악률 ²⁾	97.6	99.3	98.5	98.6	97.7	98.2	98.2	98.5	98.3
	평균약명복용수	3.9	3.9	3.8	3.5	3.4	3.4	3.7	3.6	3.7
	복용 경험률 ³⁾	77.7	77.0	77.3	79.9	71.8	75.8**	78.8	74.4	76.6*
	평균복용수	1.9	2.0	1.9	1.6	1.6	1.6	1.8	1.8	1.8

주: 1) ()안의 숫자는 미리 제시한 의약품의 수를 말함.

2) 약명파악률은 제시한 의약품중 한가지 이상 의약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3) 복용경험률은 지난 1년간 한가지 이상의 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 $P < 0.05$, ** $P < 0.01$

안정제의 경우 9가지 약품 중 한가지 이상 약품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29.3 % 였고, 평균 1.4 가지 약명을 들어보았다고 하였는데, 남·여간, 실업계, 인문계간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1.4 %가 지난 1년간 안정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남자가 2.0 %로 여자의 0.8 %보다 높았고 ($P < 0.05$), 실업계와 인문계 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 표 3 >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 마약류의 약명 파악정도 및 복용여부별 분포

(단위 : %)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안정제	약명 파악률 ²⁾	29.5	28.8	29.1	29.9	29.0	29.4	30.1	28.9	29.3
	(9) ¹⁾ 평균약명파악수	1.4	1.4	1.4	1.5	1.3	1.4	1.5	1.4	1.4
	복용경험률 ³⁾	2.2	1.8	2.0	0.5	1.1	0.8	1.3	1.5	1.4
	평균복용수	1.8	1.4	1.6	1.3	1.9	1.6	1.6	1.7	1.7
최면제	약명 파악률 ²⁾	9.9	5.8	7.8**	6.1	5.7	5.9	8.0	5.7	6.8*
	(4) 평균약명파악수	1.3	1.4	1.4	1.3	1.2	1.3	1.3	1.3	1.3
	복용경험률 ³⁾	0.8	0.3	0.6	0.7	0.2	0.4	0.8	0.3	0.5
	평균복용수	1.8	1.5	1.7	1.0	1.0	1.0	1.4	1.3	1.3
각성제	약명 파악률	33.0	42.3	37.7**	36.7	36.7	38.3	34.8	41.1	38.0**
	(4) 평균약명파악수	1.1	1.2	1.2	1.1	1.1	1.1	1.1	1.1	1.1
	복용경험률 ³⁾	16.9	16.1	16.5	18.4	18.4	14.8**	17.7	13.7	15.6**
	평균복용수	1.1	1.1	1.1	1.0	1.0	1.0	1.1	1.1	1.1
마약류	약명 파악률 ²⁾	87.3	92.4	89.9**	95.9	90.4	93.1**	91.6	91.4	91.5
	(6) 평균약명파악수	3.1	3.4	3.3	2.8	3.3	3.1	3.0	3.4	3.2
	사용경험률 ³⁾	1.8	2.5	2.2	0.8	0.8	0.8	1.3	1.6	1.5
	평균사용수	1.6	1.9	1.7	1.2	1.0	1.1	1.4	1.4	1.4

주 : 1) ()안의 숫자는 머리 제시한 의약품의 수를 말함.

2) 약명파악률은 제시한 의약품중 한가지 이상 의약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3) 복용경험률은 지난 1년간 한가지 이상의 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 $P < 0.05$, ** $P < 0.01$

최면제는 6.8%의 학생만 평균 1.3 가지를 알고 있었고 0.5%의 학생(12명)만이 복용 경험이 있었는데, 한가지 이상 복용률은 실업계가 인문계 보다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각성제는 5가지 중 한가지 이상의 약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38.0%로 인문계(41.1%)가 실업계(34.8%) 보다 높았고($P <$

0.01), 한가지 이상 복용률은 15.6%인데 실업계가 17.7%로 인문계 13.7%보다 높았다. ($P < 0.01$)

마약류는 대상학생의 91.5%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의 1.4%(36명)가 지난 1년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 경험이 높았고($P < 0.01$), 인문계와 실업계의 경험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3).

<표 4>

본드, 신나의 파악정도 및 사용여부별 분포

(단위: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본드명 파악률	85.9	92.1	89.0**	91.4	87.3	89.3*	88.6	89.7	89.2
본드사용률	2.0	2.6	2.3	0.7	0.2	0.4	1.4	1.4	1.4
신나명 파악률	67.8	76.5	72.2**	48.7	56.7	52.7**	58.3	66.5	62.4**
신나사용률	1.2	0.5	0.8	1.0	-	0.1	0.7	0.3	0.5

* $P < 0.05$, ** $P < 0.01$

본드는 대상학생의 89.2%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62.4%의 학생이 신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상자의 1.4%(34명)가 지난 1년간 본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신나는 0.5%(11명)의 학생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경험률이 높았고($P < 0.01$), 인문계와 실업계의 경험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4).

약물사용자의 사용빈도별 분포를 보면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의 복용빈도는 월 1회 이하가 81%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진통제, 소화제는 1일 1회 이상 복용자가 각각 7.7%, 6.2%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율을 보였고, 자양강장제의 1일 1회 이상 복용자는 5.2%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았다. 안정제는 월 1회 이하가 38.2%(13명), 1일 1회 이상 복용자는 5.9%(2명)였으며, 최면제도 월 1회 이하가 4명이었는데 미응답율이 높아서 빈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겠다(표 5).

각성제는 월 1회 이하가 76.4%, 주 2~3회가 7.7%, 1일 1회 이상이 5.0%(19명)였는데 1일 1회 이상 사용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약류의 사용빈도는 월 1회 이하가 63.9%(23명), 1일 1회 이상이 2.8%(1명)였고, 본드는 월 1회 이하 사용자가 63.6%(21명), 신나는 72.2%(8명)였고, 신나를 1일 1회 이상 사용하는 학생은 1명이었다(표 6).

약물 복용 경험자중에서 복용 이유별 분포를 보면, 진통제, 소화제는 치료를 위해서가 남·녀 모두 80~90% 수준으로 높았으나, 자양강장제는 꼭 필요해서 복용한 율이 남자 38.8%, 여자 43.5%로 다른 약품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안정제는 여자의 경우 40.0%가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한데 비하여, 남자는 16.7%로 치료이외의 목적으로 복용한 율이 높게 나타났

< 표 5 >

약물별 사용빈도별 약물 사용경험자의 분포

(단위 :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진통제	1일1회 이상	5.8	6.8	6.3	8.8	8.9	8.9	7.5	7.9	7.7
	주 2 ~ 3 회	4.2	4.3	4.3	3.1	3.1	3.3	3.6	3.9	3.8
	주 1 회 이하	2.8	3.4	3.1	41.3	41.3	3.1	3.5	2.6	3.1
	월 1 회 이하	87.2	84.5	85.8	83.7	83.7	84.5	85.3	85.0	85.1
	미응답	-	0.9	0.5	0.2	0.2	0.2	0.1	0.5	0.3
	(N)	(429)	(439)	(868)	(509)	(509)	(1,014)	(938)	(944)	(1,882)
소화제	1일1회 이상	4.9	6.4	5.6	6.0	7.4	6.7	5.5	6.9	6.2
	주 2 ~ 3 회	4.4	3.6	4.0	4.4	2.2	3.3	4.4	2.9	3.6
	주 1 회 이하	3.7	5.3	4.5	8.0	3.9	5.8	5.9	4.5	5.2
	월 1 회 이하	87.0	82.8	84.9	79.9	86.5	83.3	83.4	84.7	84.1
	미응답	-	1.9	1.0	1.7	2	0.9	0.9	1.0	0.9
	(N)	(454)	(472)	(926)	(477)	(503)	(980)	(931)	(975)	(1,906)
자양강장제	1일1회 이상	4.1	6.6	5.4	4.9	5.2	5.0	4.5	5.9	5.2
	주 2 ~ 3 회	4.1	4.9	4.5	3.2	3.0	3.1	3.6	3.9	3.8
	주 1 회 이하	5.4	7.9	6.6	8.4	3.4	6.0	6.9	5.7	6.3
	월 1 회 이하	85.5	78.2	81.9	81.4	86.6	83.9	83.5	82.3	82.9
	미응답	0.9	2.4	1.6	2.1	1.8	2.0	1.5	2.1	1.8
	(N)	(464)	(468)	(932)	(473)	(441)	(914)	(937)	(909)	(1,846)
안정제	1일1회 이상	-	9.1	4.2	33.3	-	10.0	6.2	5.6	5.9
	주 2 ~ 3 회	-	-	-	-	-	-	-	-	-
	주 1 회 이하	53.9	9.1	33.3	-	-	-	43.8	5.6	23.5
	월 1 회 이하	46.1	27.3	37.5	66.7	28.6	40.0	50	27.8	38.2
	미응답	-	54.5	25	-	71.4	50.0	-	61.0	32.3
	(N)	(13)	(11)	(24)	(3)	(7)	(10)	(16)	(18)	(34)
취면제	1일1회 이상	-	-	-	-	-	-	-	-	-
	주 2 ~ 3 회	-	50.0	14.3	-	-	-	-	33.3	8.3
	주 1 회 이하	-	50.0	14.3	-	-	-	-	33.3	8.3
	월 1 회 이하	-	-	-	75.0	100.0	80.0	33.3	33.3	33.3
	미응답	100.0	-	71.4	25.0	-	20.0	66.7	-	50.0
	(N)	(5)	(2)	(7)	(4)	(1)	(5)	(9)	(3)	(12)

< 표 6 >

각성제 및 마약류의 복용빈도별 약물사용경험자의 분포

(단위 :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실업계	인문계	계
각 성 제	1일1회 이상	8.9	3.1	6.0	2.8	5.8	3.9	5.7	4.2	5.0
	주 2 ~ 3 회	9.9	10.2	8.6	7.3	1.4	6.7	8.6	6.5	7.7
	주 1 회 이하	5.9	8.2	7.0	8.3	5.8	7.3	7.1	7.2	7.2
	월 1 회 이하	70.3	72.4	71.4	78.9	87.0	82.0	74.8	78.4	76.4
	미 응 답	5	6.1	7.0	2.7	-	-	3.8	3.6	3.7
	(N)	(101)	(98)	(199)	(109)	(69)	(178)	(210)	(167)	(377)
마 약 류	1일1회 이상	9.1	-	3.8	-	-	-	6.3	-	2.8
	주 2 ~ 3 회	-	-	-	-	-	-	-	-	-
	주 1 회 이하	9.1	20.0	15.4	-	-	-	6.3	15.0	11.1
	월 1 회 이하	-	60.0	73.1	40.0	40.0	40.0	6.9	60.0	63.9
	미 응 답	81.8	20.0	7.7	60.0	60.0	60.0	18.8	25.0	22.2
	(N)	(11)	(15)	(26)	(5)	(5)	(10)	(16)	(20)	(36)
본 드	1일1회 이상	-	-	-	-	-	-	-	-	-
	주 2 ~ 3 회	8.3	-	3.6	-	-	-	6.3	-	6.1
	주 1 회 이하	8.3	18.7	14.3	-	-	-	6.3	17.6	12.1
	월 1 회 이하	83.3	5.1	67.9	50.0	-	40.0	75.0	52.9	63.6
	미 응 답	-	2.3	14.2	50.0	100.0	60.0	12.5	29.4	18.2
	(N)	(12)	(16)	(28)	(4)	(1)	(5)	(16)	(17)	(33)
신 나	1일1회 이상	-	33.3	10.0	-	-	-	-	33.3	9.1
	주 2 ~ 3 회	-	-	-	100.0	-	100.0	12.5	-	9.1
	주 1 회 이하	14.3	-	10.0	-	-	-	12.5	-	9.1
	월 1 회 이하	85.7	66.6	80.0	-	-	-	75.0	66.6	72.7
	(N)	(7)	(3)	(10)	(1)	-	(1)	(8)	(3)	(11)

으며 미응답자가 다른 약품에서보다 많았다(표 7) .

< 표 7 >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안정제의 복용이유별 분포

(단위 : %)

	진통제복용자		소화제복용자		자양강장제복용자		안정제복용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치 료 하 기 위 해	91.6	93.5	79.3	85.3	33.8	43.5	16.7	40.0
먹으면 좋을것 같아서	7.0	4.9	18.4	13.1	40.1	31.1	8.3	-
공부 를 하기 위 해	0.9	0.6	1.1	0.6	10.2	7.3	4.2	-
우 울 할 때	0.1	0.5	0.2	0.3	0.5	1.0	8.3	-
호 기 심 으 로	0.1	0.1	0.1	-	2.6	2.5	12.5	-
먹고 싶어서, 맛있어서	0.1	0.1	0.5	0.5	7.9	10.3	-	-
기 타	0.1	0.1	0.2	0.1	4.1	3.3	8.3	-
미 응 답	0.1	0.2	0.2	0.1	0.8	1.0	41.7	6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8)	(1,014)	(926)	(980)	(932)	(914)	(24)	(10)
유 의 성	N·S		P < 0.01		P < 0.01		P < 0.01	

주 : 유의성 검정은 치료하기 위한 항복과 다른 항복 전부를 포함시킨 것과 비교한 것임.

최면제 복용자중 남·여 각각 1명씩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우울할 때 복용한 학생도 각각 1명씩이었다.

각성제 복용자는 공부 를 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율이 남자 89.3 %, 여자 93.2 %로 대부분이었으며, 마약류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쓰는 학생이 남자 9명, 여자 1명이었으며 우울할 때에 쓰는 학생이 남자에게서 10명 있었으며 억지로 사용한 경우도 1명 있었다.

본드는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쓴다가 남자 16명, 여자 2명으로, 신나의 사용자는 남자의 경우 우울할 때 쓴다와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쓴다가 각각 4명씩이었다(표 8).

약물 사용자들의 약물 구입장소를 보면,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최면제, 각성제는 약국에서의 구입자가 가장 많았고, 마약류, 본드, 신나는 구멍가게나 행사에서 구입한 자가 각각 25.0 %, 45.5 %, 54.4 %로 높았으며, 기타도 각각 33.3 %, 30.3 %, 18.2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9).

약품 구입은 남학생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율이 높는데 비하여 여학생은 부모가 구입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최면제와 각성제는 남·여 구별없이 본인이 구입하는율이 매우 높았으며 각성제는 친구에게서 구입하는율도 10 ~ 12 %였다. 마약류, 본드, 신나는 남자 사용자중 친구에게서 구입한율이 각각 64.0 % (17명), 46.4 % (13명), 40.0 % (4명)로 가장 높았다(표 10).

< 표 8 >

최면제, 각성제, 마약, 본드, 신나의 복용이유별 대상자 분포

(단위 : %)

	최면제복용자		각성제복용자		마약복용자		본드복용자		신나복용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치료하기 위해	-	40.0	20.1	1.1	7.7	20.0	-	-	-	-
막으면 좋을것 같아서	-	-	20.1	0.6	-	19.0	-	-	-	-
공부할 위	14.3	20.0	89.3	93.2	3.9	-	-	-	-	-
우울 할 때	14.3	20.0	4.0	3.4	38.5	-	21.4	-	40.0	-
다른 사람이 쓰기	-	-	-	-	34.6	10.0	53.6	40.0	40.0	-
때문에 호기심으로	-	-	-	-	-	-	7.1	-	-	-
공부하기 싫어서 억지로	-	-	-	-	3.8	-	-	-	-	-
미 용 답	71.4	20.0	2.5	1.7	11.5	60.0	17.9	60.0	20.0	100
계 (N)	100.0 (7)	100.0 (5)	100.0 (199)	100.0 (178)	100.0 (26)	100.0 (10)	100.0 (28)	100.0 (5)	100.0 (10)	100.0 (1)

< 표 9 >

약물 구입장소별 약물복용경험자 분포

(단위 : %)

	진통제	소화제	자 양 강장제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	마약류	본 드 신 나
	양 호 실	1.7	2.6	2.2	-	-	-	-
약 료 기 관	91.2	83.1	85.5	41.2	50.0	90.7	-	-
의 명 가 개 나	1.6	1.6	1.4	8.8	-	3.4	16.7	-
구 명 과 약 국	0.5	6.5	7.4	2.9	-	1.1	25.0	45.5
양 호 실 과 약 국	4.5	2.7	0.4	-	-	-	-	-
약 국, 구 명 가 개, 행 상 타 자	0.5	2.6	2.5	-	-	2.4	-	-
미 용 답	-	-	-	-	-	-	33.3	30.3
계 (N)	100.0 (1,882)	100.0 (1,906)	100.0 (1,846)	100.0 (34)	100.0 (12)	100.0 (377)	100.0 (36)	100.0 (33)
								100.0 (11)

< 표 10 >

약물 구입자별 분포

(단위 : %)

	진통제	소화제	자 양 강장제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	마약류	본 드 신 나
	남자 본인이 직접	54.4	95.0	57.9	35.0	28.6	80.4	24.0
부 모	33.4	27.5	24.7	25.0	-	2.0	-	-
친 구	0.1	0.6	1.7	10.0	-	12.1	64.0	40.0
본인 또는 부모	12.3	11.4	9.8	-	-	0.5	-	-
기 타	0.1	0.3	0.5	-	-	0.5	-	-
미 용 답	-	1.1	1.2	30.0	71.4	4.5	12.0	17.9
계 (N)	(868)	(926)	(932)	(24)	(7)	(199)	(26)	(28)
								(10)
여자 본인이 직접	36.8	40.0	45.2	11.1	80.0	81.5	-	-
부 모	44.9	45.9	42.1	33.3	-	1.7	-	-
친 구	1.1	0.7	1.9	-	-	10.7	12.5	20.0
본인 또는 부모	16.8	11.9	9.6	-	-	1.1	-	-
기 타	0.4	0.6	0.4	-	-	1.7	12.5	20.0
미 용 답	0.1	0.9	0.8	55.6	20.0	3.4	75.0	60.0
계 (N)	(1,014)	(980)	(914)	(10)	(5)	(178)	(10)	(5)
								100.0 (1)

약물 복용 경험 학생들은 중학시절에 약물을 처음 사용한 경우가 모든 약물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각성제는 83.6 %가

중학시절에 처음 사용하였고, 본드와 신나도 각각 45.5 % (15명), 45.4 % (5명)가 중학시절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최면제, 각성제, 마약류, 본드, 신나의 처음 사용시기별 사용자분포

(단위 : %)

		남	자	여	자	계
최 면 제	중 학 시 절	14.3		60.0		33.3
	고 교 시 절	14.3		20.0		16.7
	미 응 답	71.4		20.0		50.0
	(N)	(7)		(5)		(12)
각 성 제	중학시절이전	81.4		86.0		83.6
	고 교 시 절	16.1		12.3		14.3
	미 응 답	2.5		1.7		2.1
	(N)	(199)		(178)		(377)
마 약 류	중 학 시 절	38.5		20.0		33.3
	재 수 시	7.7		10.0		8.3
	고 교 시 절	42.3		10.0		33.3
	미 응 답	11.5		60.0		25.0
	(N)	(26)		(10)		(36)
본 드	중 학 시 절	53.6		20.0		45.5
	재 수 시	3.6		10.0		3.0
	고 교 시 절	25.0		40.0		27.3
	미 응 답	17.8		60.0		24.2
	(N)	(28)		(5)		(33)
신 나	중 학 시 절	50.0		-		45.4
	고 교 시 절	30.0		-		27.3
	미 응 답	20.0		100.0		27.3
	(N)	(10)		(1)		(111)

흡연 여부별 약물사용 경험률을 보면, 모든 약물에서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과거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

히, 여학생 흡연자(6명) 중 4명이 안정제, 6명이 각성제, 5명이 마약류, 3명이 본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들의 마약류사용자는 남·여 모두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 표 12 >

흡연 여부별 약물 복용경험률

(단위 : %)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계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안정제	5.1	1.9	0.7	66.7	2.0	0.5	6.1	1.9	0.6
최면제	1.5	0.8	0.2	16.7	0.0	0.3	1.8	0.6	0.3
각성제	31.9	17.0	10.1	100.0	25.5	13.8	33.3	18.4	12.5
마약류	7.3	1.9	0.0	83.3	5.9	0.0	9.0	2.6	0.0
본드	5.1	5.0	0.2	50.0	2.0	0.1	6.1	4.5	0.2
신나	3.3	0.0	0.2	0.0	0.0	0.1	3.2	0.0	0.1
(N)	(273)	(259)	(673)	(6)	(51)	(1,149)	(270)	(310)	(1,822)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중 치료목적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종류별로 보면, 안정제에는 옥시돌이 95.5%로 가장 높았고, 레미라 45.5%, 아티반의 순이었으며, 최면제로서는 90.0%의 바리움 가장 높았고, 각성제는 타이밍이 100.0%로 각성제를 복용하는 학생은 누구나 복용하였다. 마약류에서는 대마초가 54.6%(18명)로 가장 높은 율이었고

히로뽕 39.4%(13명), 데미롤 12.1%(4명) 순이었다(표 13).

본드사용자의 12.1%(4명), 최면제 사용자 중 1명, 마약류 사용자 중 3명, 각성제 사용자 중 12명(3.2%)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표 14).

금단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본드가 2명, 각성제가 3명, 자양강장제가 2명이었다(표 15).

< 표 13 >

약물 복용자의 약물명별 사용률

(단위 : %)

안정제 (N=22)	옥시돌 95.5	레미라 45.5	아티반 27.3	엑티바 18.2	프링가 9.1	움타리돈 9.1
최면제 (N=10)	바리움 90.0	파세돈 30.0	놀타미드 10.0			
각성제 (N=366)	타이밍 100.0	레크린 2.2	에스나민 1.6	하트마딤 1.6	나이트스투케이팅 0.8	
마약류 (N=33)	대마초 54.6	히로뽕 39.4	몰핀 9.1	아편 3.0	데미롤 12.1	마리화나 9.1

주 : 치료용 이외의 약물 사용자만 포함한 것임.

< 표 14 >

약물 사용자의 약물별 부작용빈도

복용약품명	증상	부작용자수
진통제	속쓰림, 식은 땀이 난다.	1(0.1)
소화제	몸이 가렵다.	1(0.1)
최면제	힘기 없다.	1(8.3)
각성제	웃음이 자주 나온다.	1
	머리가 몹시 아프다.	6
	속쓰림, 구토, 현기증	2
	머리가 멍하고 머리카락 빠짐	1
	코피를 많이 흘림	1
	얼굴에 경련이 일어남	1
	소 계	12(3.2)
마약류	환각, 체중감소, 식욕부진	1
	머리가 붓 뜨는 느낌	1
	두통(심한)	1
	소 계	3(8.3)
본드	김은 반점이 생김	1
	환각, 체중감소, 식욕부진	1
	두통	1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움	1
	소 계	4(12.1)

주: ()안의 숫자는 약물사용 경험자에 대한 비율임.

< 표 15 >

금단증상을 호소하는 빈도

복용약품명	증상	증상호소자수
각성제	잠이 오고 방해진다.	2
	정신이 없다.	1
	소 계	3(0.8)
자양강장제	심장이 심하게 뛰다.	1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먹어야만 할 일을 한다.	1
	소 계	2(0.1)
본드	속이 아프고 불안, 초조하다.	1
	머리가 아프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다.	1
	소 계	2(16.5)

주: ()안의 숫자는 약물사용 경험자에 대한 비율임.

Ⅳ. 고 찰

약물 남용자들은 과거에는 비마약만을 사용한 경우가 90.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¹¹⁾ 최근에 들어서면서 비마약외 마약류나 향정신성 약물이 다양해서 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고 있어 이의 대책마련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학생의 24.4%로서 김⁶⁾의 학교청소년대상 조사결과인 36.6%, 김등¹²⁾의 조사인 25.7%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남자의 경우는 흡연경험자가 44.1%로서 이¹³⁾의 조사 42.2%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¹⁴⁾는 남자고등학생의 49.0%가 흡연경험자이며, 19.3%는 현재 흡연자이고 29.7%가 과거 흡연자라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년간 약물 복용률은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가 각각 78.1%, 79.1%, 76.6%로 높은 율을 보였는데, 진통제는 김⁶⁾의 67.0%, 김¹⁵⁾의 28.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자양강장제는 김⁶⁾의 86.3%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의 복용률은 각각 1.4%, 0.5%, 15.6%로 김⁶⁾의 1.4%, 0.4%, 15.4%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김¹⁵⁾의 5.1%, 3.7%, 48.8%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마약류는 1.5%의 사용률을 보여서 김⁶⁾의 0.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으며, 본드는 1.4%로 김⁶⁾의 3.7%, 이등¹⁶⁾의 2.5%에 비하여 낮고, 김¹⁵⁾의 0.4%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는데, 마약류 사용률이 높은 것은 마약류 사범들이 부산에 많다¹⁰⁾는 지리적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드는 1971년 김¹⁵⁾의 결과에 비하여 김⁶⁾의 1988년도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권등⁷⁾이 흡입제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 보고와 부합되고 있음으로써 부모나 교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안정제, 각성제 등을 매일 복용하는 학생이 각각 복용경험자의 7.7%, 6.2%, 5.2%, 5.9% 및 5.0%로써 이들은 심한 중독증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마약성 약품의 남·오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약물 복용 이유에는 남·녀 각각 진통제가 8.3%, 소화제가 20.5% 및 14.6%, 자양강장제가 65.3% 및 56.5%가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각성제는 남·녀 각각 89.3% (178), 93.2% (166명), 최면제는 14.3% (1명), 20.0% (1명)가 숙제, 과외공부, 시험공부를 하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나타나 우리 나라 입시 제도가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김¹⁷⁾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이유로 피로움을 잊기 위해 잠을 안자기 위해, 심심해서, 호기심이나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주로 개인적이고, 입시 그리고 약물유통의 무질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면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복용하고 있음을 볼때 고등학생의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약류, 본드, 신나의 경우도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쓰는 율이 높아서 약물남용에 대한 부작용과 의존성, 중독성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마약류와 본드를 친구들이나 형들과 어울려서 억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각각 1명, 2명이 있었는데 이는 구입 장소와도 관련성이 있다. 마약류의 경우 친구 (11명)나 만화가게 (1명), 구멍가게나 행상 (9명)에서 주로 구입하였고, 본드의 경우는 30.0% (10명)가 친구, 형, 술집, 철물점등에서, 45.5% (15명)가 구멍가게나 행상에서 구입하였고, 신나의 경우도 친구나 형에게서 18.2% (2명)가 구입하여 구멍가게나 행상 (54.5) 다음으로 높아 약물사용에 있어서 사귀는 친구나 선배 등 수위사람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등¹⁸⁾이 동료의 압력이나 영향이 약물복용양상의 시작과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비마약성의약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어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광고의 제한, 유통체계 확립, 의약분업의 실시 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초로 약물을 사용하는 시기는 중학 시절부터가 높은 율을 보였고, 마약류는 중학시절과 고교시절이 같은 비율이었다. 각성제는 중학시절 이전이 83.6%였으며 그 중 중학교 3학년 때가 60%이고, 국민학교 시절도 2.9%였다. 중학시절에 처음 경험자 중 마약(남자 81.8%, 여자 100%), 본드(93.3%), 신나(80%) 등은 모두 3학년(14~15세)이 가장 높아 백등⁸⁾의 비행청소년 처음 약물 사용시기 15.7±2.1세와 거의 일치하며, 김⁶⁾의 14세 후반~16세와도 비슷하게 나타나 약물 남용은 중학교 3학년(14~15세)부터 시작률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Shearn¹⁹⁾이 미국의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의 최초 약물 사용연령 15~17세 보다 조금 앞선다. Shearn은 또 15세 이전의 약물남용은 후기에 「바비탈」계약물이나 마약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Cohen²⁰⁾ 역시 14세 이전의 조기 약물사용이 후기에 약물 중독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김¹⁷⁾은 학교청소년들은 피로회복제 남용으로 부터 약물남용을 시작하여 13세에 흡연하고, 14세에 진통제를 사용하며, 14세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각성제, 음주, 본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15세에 안정제, 16세에 최면제 사용을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약물 남용 및 음주·흡연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²¹⁾ 국민학교때 부터 학교보건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홍보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약물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과 약물사용 간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마약류는 비흡연자에게는 한명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비행청

소년에게서 흡연과 약물남용이 높기 때문에 흡연과 약물남용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Fors와 kojek²²⁾은 음주·흡연은 마리화나, 흥분제 등의 약물사용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¹⁷⁾의 흡연 시작시기(13세)가 약물남용시기(14~15세)에 앞선다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항성신성 의약품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명이 안정제는 옥시돌(95.5%), 최면제는 바리움(90.0%), 각성제는 타이핑(100.0%)으로서 고등학생의 약물사용은 한 종류로 크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친구에게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류는 대마초 54.6%, 히로뽕 39.4%, 대마롤 12.1%, 몰핀과 마리화나, 아편 순이었고 이등¹⁶⁾의 연구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것은 옥시돌, 대마초, 히로뽕이다.

부작용은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 작용으로 몸에 이상을 느낄 때라고 간주하였는데, 본드가 사용자의 12.1%(4명)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8.3%(3명), 최면제 8.3%(1명), 각성제 순이었는데, 김¹⁶⁾의 연구에 비하면 증상은 더 다양하나 호소하는 비율은 낮았다.

급단증상을 호소하는 율도 본드가 16.5%(2명)으로 가장 높았고, 각성제, 자양강장제 순이었다. 여기서 급단증상이란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가 끊거나 줄였을때 각 약물에 의해 특이하게 야기되는 심리적 현상 또는 부작용이라고 간주했다.

신문지 조사결과 항성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사용자는 사용동기, 구입장소, 사용빈도 등에 미응답율이 높았으므로 원하는 자료조사를 하는데 불충분하였으므로 앞으로 조사방법이나 도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V. 요 약

학생들 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약물 남용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 사이에 부산 시내에 위치한 인문계·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4개교의 학생 2,4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약물 남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들의 24.4%가 흡연경험이 있었고, 현재 피우는 학생은 11.6%였으며,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보다 더 많았다.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를 제외한 모든 약물의 약명 파악률은 90% 이상이었으며, 지난 1년간 복용경험자 비율은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가 70~80% 수준이었고 각성제는 15.6%, 안정제는 1.4%, 최면제는 0.5%였으며, 마약류는 1.5%, 본드 1.4%, 신나 0.5%였다.

약물 사용 경험자중에서 매일 복용 혹은 사용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진통제 7.7% (145명), 소화제 6.2% (118명), 자양강장제 5.2% (96명), 안정제 5.9% (2명), 각성제 5.0% (19명), 마약류 2.6% (1명)였으나 최면제와 본드의 매일 사용자는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고등학생은 비마약성 약물의 남용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약물을 치료목적 이외에 사용한 학생은 남녀 각각 진통제 8.4%, 6.5%, 소화제 20.7%, 14.7%, 자양강장제 65.4%, 55.5%였으며 마약류는 우울할 때나 호기심으로 쓰는율이 높았다. 특히 각성제는 대부분 공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제도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구입 장소별로는 마약류, 본드, 신나는 구멍가게나 행사, 친구에게서 구입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약품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의 구입률이 높았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모든 약물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사용은 흡연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대상 학생들의 약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 비율은 높으나, 약물을 타당한 목적(신체적, 정신적 건강향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약물의 처음 사용시기가 중학시절(14~15세)이 많았으며 호기심에서 사용한 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부작용과 의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찍부터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금연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약물을 약국, 구멍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약물 통제를 위한 규제를 검토·보완해야 하며, 의약분업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下村孟; 醫藥品의 實際知識.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1976, p.4.
2. 太田秀; 醫藥品 産業의 諸問題. 川上式, 中川米造論, 醫療産業, 東京; 日本評論社, 1976, pp.58~78.
3. 김신근: 약-약효와 안전성. 현대 과학신서 전파과학사 120, 1986, pp.7~14.
4. 민재성, 박재용: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한국개발연구원, 4(4):127~148, 1982.
5. 박재용: 전국민 의료보험과 약국의 역할: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서울약사회지, 12(1):8~24, 1987.
6. 김성이: 청소년층의 약물남용의 실태.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 심포지엄 보고서, 대한적십자사, 1988, pp.7~133.
7. 변상호, 이태복, 이년수: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 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13:32~36, 1978.
8. 백명기, 민병근: 비행 청소년의 약물 사용 빈도 및 약물 사용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2):234~246, 1981.
9. Black, S., Dwens, K.L. and wolf, R.P.: Pattern of drug use: study of 5432 subject. Am. J. Psychiatry, 127:420-423, 1970.
10. 부산일보: 1989년 3월 7일자
11. 서원벽: 약물남용에 관한 임상적 고찰.

- 신경정신의학, 16(2):197 ~ 217, 1977.
12. 김현수, 이길홍, 민병근 : 청소년의 음주·흡연실태와 개선책. 청소년, 16:11 ~ 15, 1981.
 13. 이신욱 : 남자고등학교 학생의 흡연과 건강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4. 이영숙 :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33 ~ 56, 1983.
 15. 김혜성 : 남·녀 중·고등학생에 있어서 향정신성 약물사용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원논총, 7,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생활과학연구원, 1971, pp.103 ~ 109.
 16.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 :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17(12):130 ~ 146, 1985.
 17. 김성이 : 한국청소년 약물남용과 비행행위. 한국인구학회지, 11(2): 54 ~ 66, 1988.
 18. 김현수, 민병근, 이철 : 약물남용 청소년의 환경역동적 분석. 중앙의 대지, 13(4):491 ~ 496, 1989.
 19. Shearn, C.R. and Gibbons, F. : Patterns of drug use in a population of youthful psychiatric patients. Am. J. Psychiatry, 128:1381-1387, 1972.
 20. Cohen, M, and Klein, D.F. : Age of onset of drug abuse in Psychiatric in patients. Arch. Gen. Psychiatry 26:266-269, 1972.
 21. 남정자, 정기혜 : 학교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 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pp.81 ~ 87.
 22. Fors, S.W. and Rojek, D.R. :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 use Patterns. Juvenile Drug Education, 13(3):211, 1983.